보 도 자 료

보도일시	7월 1일 10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담당 부서	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	김법정 과장 / 박판규 사무관
		044-201-6860 / 6877
	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	장철호 과장 / 배현중 사무관
		044-215-4330 / 4333
	미래창조과학부 원천기술과	김진우 과장 / 이병희 서기관
		02-2110-2380 / 2384
	산업통상자원부 기후변화산업환경과	문양택 과장 / 서민하 사무관
		044-203-4240 / 4249
	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	김영태 과장 / 김기택 사무관
		044-201-3804 / 3789
	국무조정실 환경정책과	이교영 과장 / 김명규 사무관
		044-200-2350 / 2363
배포일시	2016. 7. 1. / 총 8매	

정부합동,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 수립

◇ 2020년까지 친환경차 보급에 3조원, 충전인프라에 7,600억원,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 1,800억원 등 약 5조원 투자

◇ 금년 7월중 에너지상대가격 조정 연구 착수, 석탄화력발전소 미세먼지 저감대책 발표, 노후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(LEZ) 시행 방안 확정 등 핵심대책의 구체화 및 일정단축

◇ 노후경유차 폐차 후 신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감면(70%), 선박 배출가스 관리 개선 방안 마련 등 추가대책 마련

□ 정부는 6월 30일 “미세먼지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”을 확정했다고 밝혔다.

○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의 최우선 해결과제로 설정하고,

○ 특별대책의 실효성있는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사업별 세부 추진 일정과 투자계획을 마련하였으며, 추가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도 도출하였다.

○ 정부는 2020년까지 친환경차 보급에 3조원, 충전인프라에 7,600억원,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 1,800억원 등 약 5조원을 예산당국과 협의하여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.

□ 이번에 정부가 확정한 「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」은 대책내용 구체화, 추진일정 단축, 추가보완 대책마련에 중점을 두고 검토되었다.

try of Trade,
try and Energy

○ 먼저, 이행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았던 석탄화력발전소 기인 미세먼지 저감대책,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방안 검토, 친환경자동차 확대, 노선버스 CNG 전환 등의 추진방안을 마련하였다.

○ 노후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, 미세먼지 발생원 원인규명 연구는 일정을 최대한 단축하여 추진한다는 방침이다.

○ 기존 특별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, 노후 경유차 폐차후 신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70% 감면, 선박 배출가스 관리 개선 등이 추가 보완 대책에 포함되었다.

□ 이번에 정부가 확정 발표한 「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」 중 「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」에서 구체화 되고, 추가로 발굴된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
최미화 / 홍보담당관 / 2016-07-01 11:14:20

#1. 경유차 미세먼지 저감대책 마련

□ 에너지 상대가격의 합리적 조정방안 검토를 위하여 올해 6월에 범부처 TF를 구성하고 연구계획을 수립하였고, 올해 7월부터 4개 국책연구기관*이 공동연구에 착수한다.

* 조세재정연구원, 환경정책평가연구원, 교통연구원, 에너지경제연구원

○ 2017년 6월에는 공동연구에 대한 공청회 등을 거쳐, 합리적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.

□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(LEZ : Low Emission Zone)의 구체적 시행방안을 올해 7월 중 확정한다.

○ 환경부는 2016년 6월 28일(화) 환경부차관 주재로 서울시, 인천시, 경기도 3개 시·도 관계자와 수도권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 시행방안을 논의하였다.

- 동 회의에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하는데 대체적인 의견 접근에 이르렀다.

○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시행지역, 시행시기, 대상차종 등 구체적인 제도 시행 방안을 추가 협의 후 올해 7월까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 시행방안을 확정한다.

□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를 위해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신규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6개월간 70% 감면(대당 100만원 한도)한다.

○ 정부는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여 신규 승합차·화물차 구입시에도 취득세 한시 감면을 검토키로 하였으며,

○ 또한, 수도권 등 일부지역에 한정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하고, 지원금액도 상향 추진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다.

□ 선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방안을 강구한다.

○ 올해 11월까지 환경부(국립환경과학원)과 해양수산부(한국선급) 합동으로 선박별 미세먼지 배출량을 산정하고, 내년 7월까지 구체적인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마련한다.

#2. 발전소 미세먼지 저감대책 마련

□ 석탄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올해 7월 중 확정한다.

○ 주요내용은 ① 노후 석탄발전 10기 처리(폐지, 대체건설, 연료전환 등), ② 기존 석탄발전소에 대한 대대적 성능개선 실시, ③ 자발적 협약을 통해 배출량 감축 유도 등이다.

○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는 전력수급에 미치는 영향 및 인근지역 계통(송전선)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기의 개별 석탄발전소 처리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.

○ 20년 이상 발전소에 대해 성능개선 사업과 함께 오염물질 설비에 대한 대대적 교체방안을 마련하여, 오염물질을 획기적으로 저감한다.

○ 20년 미만 발전소(35기)는 저감시설 확충공사를 우선 실시하되, 석탄발전소가 밀집해 있는 충남지역에 대해서는 최대한 조속히 설비 확충공사를 실시할 계획이다.

try of Trade,
try and Energy

□ 정부는 차기 전력수급계획 수립시에는 석탄발전 비중을 축소하고, 친환경 전원믹스, 태양광 등 친환경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.

최미화 / 홍보담당관 / 2016-07-01 11:14:20

#3. 주변국과의 환경협력 확대

□ 주변국과의 공동연구와 정부간 대화채널 구축 등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함께 모색하고, 주변국의 미세먼지 대응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.

○ 올해 10월 제3차 한·중 공동연구단 워크숍을 개최하여 베이징 지역 초미세먼지 발생원인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,

- 11월부터는 미세먼지 배출량 개선 및 기상특성 파악 등에 대한 신규 연구에 착수할 예정이다.

○ 이와는 별도로 올해 11월 한-중 환경부 국장급 회의를 개최하고, 미세먼지 저감 방안의 구체적인 이행대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.

□ 주변국 환경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정책 지원방안을 마련한다.

○ 한·중 미세먼지 저감 실증 협력사업 대상지역을 현재 산동성과 하북성에서 산서성과 섬서성까지 확장하고, 협력분야를 제철소에서 석탄발전과 소각발전까지 확대한다.

- 올해 12월까지 국내 우수환경기술을 추가 선정(8개사 13개 기술)하여 중국 발주처 대상 기술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국내기업의 사업 수주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.

□ 중국의 노후경유트럭에 대한 매연저감장치(DPF) 부착사업을 추진한다.

○ 올해 하반기에는 하북성 관내 경유차량에 대한 매연저감장치 부착 시범사업을 추진하고, 내년부터는 북경시, 천진시 등으로 사업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.

* 중국 정부는 '17년까지 미세먼지 10% 저감을 목표로 노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(DPF) 부착 사업을 추진 중

#4. 미세먼지 예·경보 개선 및 기술개발

□ $PM_{2.5}$ 측정망 등 미세먼지 예·경보제 운영인프라를 확충한다.

○ '15년부터 법정기준으로 신설된 $PM_{2.5}$ 측정망을 PM_{10}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.('16.4월 152개소 →'18년 287개소 →'20년 293개소)

○ 공간분포상 취약지역(비수도권)과 예·경보 권역을 고려하여 전국적 오염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확충하고, 내용연한(10년) 도래에 따라 기존 노후장비를 교체하고, 측정자료 전산망도 확충한다.

□ 예보 불확실성 감소를 위한 예보모델 다양화와 고도화를 추진한다.

○ 한국형 예보모델 개발 및 예보권역별 맞춤형 상세모델을 구축하고,

○ 올해 7월 환경부와 IBM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, 수치예보와 인지컴퓨팅 기술을 융합한 예보 보정 알고리즘 개발에 착수한다.

try of Trade,
try and Energy

□ 미세먼지 직접배출과 전구물질(SO_x, NO_x, VOC, NH_3 등)에 의한 2차생성 $PM_{2.5}$의 발생원인 분석 및 예측기술을 개발한다.

○ 2018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, 측정결과를 기초로 대기 중 화학반응을 고려하여 지역규모 영향을 예측·분석이 가능한 '대기질영향예측시스템(K-MEMS)*'을 개발한다.

* K-MEMS(Korea Monitoring-Emission Model System) : 대기중에 배출된 오염물질의 화학반응·이동·확산에 따른 대기질 영향 예측 도구

□ 미래부, 환경부, 복지부 등 범부처 합동으로 '미세먼지 기술개발 종합계획'을 9월까지 마련하고, 미세먼지 4대 분야*의 과학적 솔루션 마련을 위한 '다부처 R&D 프로젝트'를 본격 추진한다.

* ① 발생·유입. ② 측정·예보, ③ 집진·저감, ④ 보호·대응

○ 미세먼지 저감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지자체·출연(연)·기업 합동 실증사업도 병행할 계획이다.

최미화 / 홍보담당관 / 2016-07-01 11:14:20

□ 정부관계자는 “이번 「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」에서는 지난 6.3일 발표한 정부합동 특별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 일정, 제도 및 소요예산을 최대한 구체화하였다.”고 언급하면서,

○ 향후 정부 합동의 미세먼지대책 이행 TF를 중심으로 핵심대책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 평가하고,

○ 향후 10년 내에 수도권 미세먼지 오염도를 유럽 주요도시의 현재 수준으로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붙임 : 미세먼지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 주요내용 1부.

붙 임 **미세먼지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 주요내용**

유 형	대책내용	조치내역
대책내용 구체화	- **(석탄화력발전소) 발전소 배출기준 강화목표**(예, 영흥수준 등), 노후 **발전소 10기 처리 대상** 및 일정을 마련해 발표	- 신규발전소(9기)의 영흥화력 수준으로 배출기준 강화('16.7월~'17.4월), 투자계획 마련(7월중) * 영흥화력(3~6호기)기준: SOx 25, NOx 15, 먼지 5 * 타수도권 기준: SOx 50-100, NOx 50-140, 먼지 10-25 - 30년 이상된 노후 10기*의 처리방안 확정·발표(7.5일 예정) * 호남1·2, 영동1·2, 서천1·2, 삼천포1·2, 보령1·2
	- **(에너지 상대가격) 국책연구기관**(조세연구원 등 4개) TF를 조속히 **발족, 연구 착수**	- **'16.7월 중 연구진 구성, 연구계획 수립, 연구용역** 발주
	- **(친환경자동차 확대)** '20년 신규 차량 30% 목표 재원계획, 전기차 충전 시설 등 인프라 구축 및 재원계획 조속히 마련	- '20년까지 친환경차 150만대, 전기차 충전기 3,000기, 수소차 충전소 100개소로 확대 위한 소요예산 협의 중
	- **(노선버스 CNG 전환)** CNG 버스 보조금 지급 추진계획, 노선버스 CNG 전환 일정 구체화	- **CNG버스 구입비** 지원 확대 ('16: 6백만원→ '17년 : 12백만원) - **CNG하이브리드 버스 구입비** 지원 확대 ('16: 30백만원→ '17년 : 35백만원)
일정 단축	- **(노후경유차 수도권 진입제한)** 수도권 지자체와 즉시 협의에 착수	- 환경부-수도권 3개 지자체 고위급 간담회를 개최(6.28., 환경부 차관 주재), 세부 논의를 거쳐 **'16.7월 중 확정·발표**키로 합의
	- **(발생원 규명)** 4대분야(발생·유입, 측정·예보, 집진·저감, 보호·대응)에 대한 R&D 즉시 추진	- 연말까지 환경과학원, 전문가 등과 발생원 심층검토 - **범부처(미래부, 환경부, 보건부 등) 협업사업**으로 미세먼지 원천기술 R&D 기획 착수('16.6월~)
추가보완 대책마련	- **(개소세 감면)** 노후경유차 폐차 후 신차 구매시 개소세 감면	- 노후경유차('06년말 이전 등록) 폐차 이후 신규 승용차 구입시 개소세 6개월 감면(70%, 100만원 한도), 조속한 입법 추진
	- **(선박관리)** 선박별(내·외항선, 어선) 배출량 산정 후 배출량이 많은 선박에 대한 연료유 황함유량 규제, 저감장치 부착 등 검토	- 환경과학원 선박 배출량 자료 개선* 후, **해수부 주도**(환경부 협조)**로 공동연구** 수행, 저감대책 마련 * 선박배출량 산정방법 개선 및 '14년 상세배출량 산정(~'16.11월)

try of Trade
try and Energy

최미화 / 홍보담당관 / 2016-07-01 11:14:20